

하나님의 제단인 번제단을 다시 쌓음**4/17 월요일**아침의 누림**스 3:2**

2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롬 12:1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출 20:1-3, 24

1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3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24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를 희생 제물 삼아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민 29:36

36 너희는 다만 번제물 곧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흠이 없는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신 12:5-6

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6 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시 43:4a

4 그리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저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오, 하나님, 저의 하나님! 저는 수금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무언가 회복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에스라기 3 장은 첫 번째로 회복된 것이 제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 ... 제단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곳이다. 이것은 참된 헌신의 회복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2 장, 49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라기 3 장에 따르면, 그들은 제단 위에 번제물 외에는 어떤 것도 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다른 어떤 제물도 드리지 않았다. ... 우리 모두는 번제물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임을 안다. 속죄제물은 죄에 대한 것이고, 속건제물은 우리의 허물에 대한 것이며, 화목제물은 우리의 화평을 위한 것이고, 소제물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번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번제물만 드려야 한다.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 전 존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생활의 출발이다. 교회생활을 하려면 먼저 모든 것을 반드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대학 학위와 학식을 드러야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전 존재를 제단 위에 드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회복될 수 없다.

몇몇 지역에서 나는 어떤 형제들이 교회생활 안에서 책임을 맡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목도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전 존재를 제단 위에 두지 않았다. 각지에서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이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에 대해 참된 부담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적은 인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 즉 여러분이 소유한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의 존재를 제단 위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추구하는 이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과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하다.

에스라기 3 장에서 그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렸다. 그들은 끊임없이 번제물을 드렸다. 제단 위에는 불태워지는 것이 항상 있었다. 오직 이런 종류의 헌신만이 교회들의 건축을 이끌어 올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진지하다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러야 한다. ...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바빌론에서 살았던

것처럼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교회들의 건축의 회복을 위한 생활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몇몇 교회들은 증가가 거의 없었다. 그들이 주님께 진지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증가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차갑거나 뜨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차갑다면, 함께 얼어붙을 정도가 되자. 만일 우리가 뜨겁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뜨겁게 되자. ... 만일 우리가 그렇게 불타오른다면, 교회의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회복을 위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9 년, 2 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의 회복, 2 장, 496-49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4-5 장;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5 장

4/18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2:2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눅 9:23

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히 13:10

10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엡 2:14-16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1:17-18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8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한 인격과 한 길을 주셨다. 이 한 인격은 으뜸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고, 한 길은 십자가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재이시다.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분을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시고, 한 길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초점이신 것과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24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낮 동안에 무엇을 했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오후에 우리가 아내나 남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불쾌해졌다고 가정해 보자.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불쾌해진 느낌에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불쾌한 느낌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길이 금욕주의나 고행이 아니라 십자가임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인식하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잠자리에 누우며 십자가를 통해 잠들기를 실행한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부활 안에서 새사람으로 깨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유일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길에 반대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가 있다.

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하면서 많은 교차로에 이른다. 모든 교차로가 십자로(十字路)임을 알고 있는가? 이 십자로 중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지만 모두 십자로이다. 많은 십자로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해 말할 때, 우리 또한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많은 십자로를 통과해야 한다. 교차로를 건너가지 않고서는 지리적으로 멀리 이동할 수 없는 것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유일한 길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우리는 어떤 것들에 관하여 결심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한 실행은 효과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밤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잠자리에 들고 편안히 잠을 자며, 아침에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은 금욕주의와 반대된다!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며, 또한 고속 도로이다. 십자가를 기꺼이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좁은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기꺼이 취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고속 도로가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말한 바울의 태도였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는 더욱 대치되실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소유한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26 장, 245-246 쪽, 1 장, 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6-9 장;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10 장

4/19 수요일

아침의 누림

민 28:2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정해진 때에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

고후 5:15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5:2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레 1:3-4

3 만일 제물을 소 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 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4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한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져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룰 것이다.

고후 5:15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5:19, 30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8 장 2 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음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음식을 잊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께 음식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이루었다. 나는 음식과 음료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나의 음식을 돌보기를 요구한다. 나의 음식은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들이다. 이 제물들은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40 장, 315-31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민수기 28 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오셔서 마치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희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느냐? 너희는 만족하고 행복하느냐? 나와 나의 만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의 음식을 돌보아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너희를 돌보았다. 나는 새롭고 완전한 방식으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했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잊지 않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배고프시며 음식을 드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 자신에게 먹을 무언가를 제공할 수 없다. 그분의 음식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서 와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곧 나를 만족시키는 향기인 화제물을 … 내게 삼가 바쳐야 한다.”(민 28:2)

민수기 28 장에 언급된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음식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식이심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일한 음식 곧 그리스도를 누린다. … 그리스도는 이 장의 내재적인 실질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화평이다. 최상의 교통은 먹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과 최상의 교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우리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식이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식이 되지 않으신다. 그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음식은 또한 우리의 음식이 된다.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우리는 번제물이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불태워져야 함을 볼 것이다. 번제물의 어떤 부분도 그것을 드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번제물에 소제물이 수반되면, 번제물 중 많은 부분이 드린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즉 하나님께 그분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는 나의 음식을 나에게 주었다. 이제 나는 이 음식의 일부를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 우리가 잔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잔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잔치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잔치한다. 우리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함께 잔치한다.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누린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음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린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그리스도의 일부를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40 장, 318, 321-322 쪽)

번제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온전하고 절대적인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레 1:9, 요 5:19, 30, 6:38, 7:18, 8:29, 14:24, 고후 5:15, 갈 2:19-20).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1 년, 2 권, 교회생활을 위해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3 장, 3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민수기 라이프 스타디, 40 장;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10-13 장; 위트니스리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6 장

4/20 목요일

아침의 누림

레 1:9

9 그가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번제물이고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히 10:5, 7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요 8:28-29

2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여러분은 내가 ‘나는 -이다’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29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 17:5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고후 5:21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번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활인데,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 적인 삶을 산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없다. ...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더럽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더러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여전히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거룩한 것을 말할 때마다 나에게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주님의 씻기심과 정결하게 하심을 신뢰한다.(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8 장, 93-9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생활을 가리킨다. 그런 생활은 절대적으로 순수한 근원에서 나오며, 타락의 요소나 흠이나 죄가 전혀 없다. 이런 생활은 순수하고 거룩하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이 될 정도로 타락했다. 세상은 전적으로 더럽다. 사실상 세상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세상이다. 우리의 실질과 본질과 기질과 요소 전부가 더럽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한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8 장, 94 쪽)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범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별로 위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에게 잘못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필요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첫 번째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위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상태의 첫 번째 방면이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의 행함이 옳든 그르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련한 상태이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은행 강도이고 어떤 사람은 신사일 수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강도이건 대학교수이건 모두 똑같다. 때로는 심지어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전도자들과 목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잡지를 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관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존재 전부가 백 퍼센트 하나님만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정직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는 그분이 필요하다. 번제물은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심을 상징한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 본다면, 이 땅에서 백 퍼센트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무엇이 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셨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과 선택을 위한다. 그러나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신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1년, 2권, 실재이신 그리스도, 2장, 31-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1년, 2권, 실재이신 그리스도, 2-3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21 장

4/21 금요일

아침의 누림

레 1:4-5

4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한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져 그를 위하여 속죄를 이룰 것이다.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젊은 황소를 잡아야 하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위와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벤전 1:18-19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롬 3:23-25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25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롬 6:4-5, 8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레위기 1 장 4 절에 따르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에 손을 얹기도 하였다.

성경에서 손을 얹는 것은 언제나 동일시하는 것, 곧 연결하는 것을 상징한다. 손을 얹는 것은 대치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 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우리가 제물과 하나이고 제물을 우리와 하나인 것으로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손을 얹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든다.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이렇게 연결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됨을 가리킨다. 이것은 교환이 아니라 연결이다.(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 장, 45-4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자신이 전혀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실지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손을 얹을 때 곧 안수할 때, 우리의 약점은 그분의 약점이 되고 그분의 장점과 미덕은 우리의 장점과 미덕이 된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연결에 의해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 곧 번제물의 삶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 그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반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속죄의 문제, 곧 화해의 문제이기도 하다. 화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갖고 계신 문제들이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을 처리하여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한다. ... 그러므로 번제물에 손을 얹는 것은 화해를 위한 것이다.

레위기 1 장 5 절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용서받도록 제물의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이다.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은 제단 위에 태워진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 1 장 6 절은 제물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떼었다고 말한다.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학대를 거처셨다. 그분은 가족이 벗겨지셨고 각이 떼어지셨다.

제물의 가족을 벗기는 것은 제물의 외적 표현을 벗기는 것이다. 번제물의 가족이 벗겨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분의 인간 미덕의 외적 표현이 벗겨지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한다.

제물의 각을 뜨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번제물로서 조금도 보류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온 존재가 부서지도록 허락하신 것을 상징한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물들로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이 감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누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지 않지만,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취해야 하고 그분을 번제물로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과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하시는 완결되신 영이십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하시면서 저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일 수 없지만,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저는 당신을 저의 번제물로 취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누릴 것이다.(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 장, 46-47 쪽, 14 장, 157-15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 14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권, 생명의 체험에 관한 실지적인 공과, 4 장; 진리 공과, 3 단계, 2 권, 21 과

4/22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12:1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고후 5:15

15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빌 3:10-16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16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같은 규칙으로 행합니다.

헌신의 의미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롬 12:1).

구약에서 사람들은 수소와 숫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소는 원래 우리에게 살며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데 사용되었다. 이제 소는 우리에서 끌어내어져 제단 옆에 두어졌다. 이것은 소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그런 다음 소는 죽임당하고 제단 위에 놓이게 되며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된다. 이것은 소의 용도가 바뀐 것이다. 이처럼 이 소는 희생 제물이 된다. ... 제단 위에 드러진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위한 것이다. 간략히 말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예표이다. ... 헌신의 의미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생명의 체험(상), 3 장, 61-6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 번제물로 드러야 한다. 차이점은 구약의 백성이 죽은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다. ...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만족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족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의 참된 의미이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목적은 그분을 향하여 사는 데 있다(고후 5:15).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 때 우리와 그분은 여전히 둘일 수 있지만, 그분을 향하여 살 때 우리와 그분은 분명 하나가 된다. 그분을 향하여 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도 취한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동에서 우리는 주님께 협력해 드리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생명 공과, 18 과, 133 쪽)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절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심지어 단지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 참된 경배,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드리고 우리의 체험에 따라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며 갈망하시는 경배이다.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유지하고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심프슨(A. B. Simpson)은 그가 지은 찬송에서 "주의 부활 알았으니 죽음 두렵지 않네"(찬송가 362 장)라고 말한다. ...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공급이 있으며, 이 공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이 바울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생활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교회생활에서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험들 안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고 번제물로서 그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태워 바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그분의 만족과 안식을 위하여 그분께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만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달콤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것이 번제물의 의미이다.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9 장, 114-115 쪽, 4 장, 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봉사, 2 장;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 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4, 6장

찬송: 279 (英) 먼저 피로 씻고서 (中:227)

1 먼저 피로 씻은 후에 관유로 적셔지네
골고다 가지 않으면 오순절을 못 얻어
피로 씻지 않는다면 능력 임할 수 없네
주님의 증거 되려면 자아 못 박혀야 해
(후렴)

십자가로 혼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해- 성령 충만하도록.

2 먼저 반석 깨져야만 생수 넘쳐 흐르네
먼저 죽음 거쳐야만 성령 충만 얻으리
우리 진정 주와 함께 죽고 모두 잃을 때
주의 능력 강림하여 세상 구원하리라

3 제단 후에 불이 오고 잃어야 열매 오네
모두 주께 드러야만 보좌 위에 오르리
우리 진정 희생하여 주께 순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나타내게 되리라

4 먼저 빈 병 있어야만 안에 기름 부어져
먼저 계곡 파져야만 생수 깊이 흐르리
먼저 요단 건너야만 기름 바름 많아져
먼저 침례 거쳐야만 비둘기를 체험해

5 황금 들판 바라볼 때 우리 기뻐하지만
먼저 밀알 죽어야만 많은 열매 얻는다
생명 열매 얻으려면 죽음 체험 필요해
갈보리를 피한다면 생명 능력 없다네

6 주여 나로 신실하게 좁은 길 가게 하고
교만 제해 순종하여 고통 받게 하소서
더 큰 능력보다 깊은 죽음 필요하오니
갈보리의 참된 뜻이 내게 이뤄지도록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5:12-6:23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0-11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The Justification of Our Father Abraham--the Righteousness of Faith
로마서 4:1-25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msgs. 6-8
Supplemental Reading: The Normal Christian Life, ch. 2
Hymn: 312
churchinnyc.org/bible-study

4/23 주일

아침의 누림

히 10:8-12, 19-22

8 위의 말씀에서 “희생 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러지는 것입니다).

9 그 후에 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10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만에 영원히 드러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자주 드리지만, 그 희생 제물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9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21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